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

김민정¹⁾, 김윤정²⁾, 정진아³⁾

Korean adaptation experience family life in multicultural women

Min Jung Kim¹⁾, Yun Jeong Kim²⁾, Jin Ah Chung³⁾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을 다문화여성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색함으로써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의 현상을 이해하고 경험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시부모와 3년 이상 동거경험이 있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결혼이주여성 각각 5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의 6가지 본질적 주제는 '선택한 삶',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정', '민들레 홀씨 같은 삶', '새로운환경에 낮 설은 삶',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가족', '가족으로 끌어안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가족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핵심어 :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적응 경험, Colaizzi의 현상학, 다문화 가족

Abstract

This study has an objective to understand adaptability experiences phenomenon of Korean family and discover the essence of experiences by deeply studying Korean family adaptability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ir viewpoi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argeting total of 20 marriage migrant women of each 5 women from China, Vietnam, Philippines and Japan respectively who have long than 3 years cohabitation experienc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hich i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6 fundamental subjects of marriage migrant women about Korean family adaptability experiences were identified as 'endlessly agonizing and grateful parent's home', 'life like dandelion spore', 'unfamiliar life in new environments', 'family which plays a role of windbreak' and "hugging as a family". This study has a meaning as the basic data to improve Korean family adaptability and life qu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Key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family adaptability experience, Colaizzi's phenomenology, Multicultural Family

Received (March 03, 2015), Review Request(March 04, 2015), Review Result(March 23, 2015)

Accepted(April 13, 2015), Published(June 30 2015)

¹356-706 Dept. Elderly of Welfare, Hanseo Univ. Hanseo 1-ro Haemi-myun Sesan-city Chungnam-do, Korea
email: kimmjsss@hanmail.net

²(Corresponding Author) 356-706 Dept. Elderly of Welfare, Hanseo Univ. Hanseo 1-ro Haemi-myun Sesan-city Chungnam-do, Korea
email: twoyun21@hanmail.net

³356-706 Dept. Elderly of Welfare, Hanseo Univ. Hanseo 1-ro Haemi-myun Sesan-city Chungnam-do, Korea
email: clarajina@hanmail.net

1. 서론

처음에 저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 많이 못해서. 그런데 어머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처럼 막 큰소리 지르는 거야. 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웃으며 얘기 안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뚝 떨어진 느낌? 너무 서떡 한데 나만 뚝 떨어진 느낌? 그래서 첫날에는 시집 와가지고 아버님이 집에다가 잘 도착했다고 인사하라고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나 혼자 있다는 게.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적응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 와서 1년 돼서 얘기 낳았나? 그러면서 놀러 살게 되었죠.

위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감은 다문화여성들이 적응 초기에 흔히 겪는 문제이다. 매년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여성 즉, 혼인귀화자와 국적취득을 하지 아니한 결혼이주여성을 합산한 인구는 2011년 188,580명, 2012년 196,789명, 2013년 206,369명, 2014년 213,989명[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제 한국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며 다문화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로의 동화만을 강요할 수는 없게 되었다[2]. 다문화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다문화여성들의 사회문화적응이나 가족관계 안에서의 적응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내 다문화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단기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없이 한 두 번의 만남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다문화여성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3],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문화부적응 및 갈등은 기대했던 한국결혼생활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한다[3][4]. 또한 다문화여성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과[3], 부양 및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났다[5]. 다문화여성의 적응과 관련하여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부관계[7], 한국 문화[3][6] 등 적응관련요인과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과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적응[2][8], 고부관계적응[9][10]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 적응과 가족관계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여성이 한국 가족생활 내에서의 적응 경험에 관심을 두고 시부모 동거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80.5%를 차지하는[1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 가족 적응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부모 동거 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가족 내에서의 적응 경험의 본질을 규명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문화여성들이 한국 가족생활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은 무엇이며,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여성들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에서 얻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다문화여성들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밝히고자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또한 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표집경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인 시부모와 3년 이상 동거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결혼이주여성을 찾아 선정하였다. 한국가족적응에 있어서 동거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상위 3개국에 달하고[11]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집을 위해 충남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접촉하여 연구 취지를 밝히고 시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 동거 기간이 3년 이상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을 추천 받았다. 충남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부터 총 24명의 연구 예비 참여자를 추천 받아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중국 결혼이주여성 5명,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5명,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5명, 일본 결혼이주여성 5명 등 총 20명을 2013년 6월부터 12월 까지 약 7개월간 개별 면접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선택한 삶

첫 번째 주제인 <선택한 삶>은 다문화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동기 또는 목적으로서 '친정가족을 돕기 위해', '코리안 드림', '보편화된 국제결혼 문화', '종교적 신념'으로 묶여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을 떠나 인종과 언어,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한국에서의 낯선 삶을 저마다의 동기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였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모국의 친정가족을 돕기 위해 낯선 삶을 선택하였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친정가족들을 초청하여 한국 내 거주가 용이해 지고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환율 차이로 작은 금액이라도 송금을 하면 친정가족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삶을 선택하

였다. 실제로 친정가족들이 한국 내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많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힘겨웠던 유년기 삶의 도피처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한국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로맨틱하고 책임감 강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코리안 드림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주변에서 보편화되어진 국제결혼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 연구참여자 5명은 모두 통일교 신도로서 종교적 사명감으로 한국생활을 선택하였다.

뭐라고 해야 하나? 한국으로 시집오면 가족들이 울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한국을 울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돈 벌수 있고 일단 우리 친정이 먹고 살기 쉽드니까 한국 보다는 쉽드니까, 친정 쪽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돈 벌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국이 중국보다는 살기 좋으니까 한국 시집와서 나만 잘하고 살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그리로 가보자 그런생각으로..

3.2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정

두 번째 주제인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정>은 다문화여성들이 생각하는 친정의 의미로서 '안쓰러워하는 가족', '친정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함', '비빌 언덕이 되어 준 친정'으로 묶여졌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친정을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혼의 동기이다. 이러한 딸의 선택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꽃 같은 딸을 팔려 보낸다는 미안한 마음과 가끔 들려오는 폭력으로 인해 죽기도 한다는 소식에 늘 걱정과 안쓰러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가족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생의 학비를 대주거나 명절이나 돈이 생길 때 마다 조금씩 친정에 송금하며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 뿌듯해 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일본이나 최근 경제호황기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결혼이주여성 중 연애결혼을 한 연구참여자 몇은 오히려 친정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친정으로 데려가 키워준 사례도 있었고, 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의 도움으로 분가를 하여 비빌 언덕이 되어준 친정가족들에게 고마워하였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한국으로 팔려 보냈지만 한국에서 가끔 맞고 누군가에게 죽었다는 베트남 소식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늘 저를 걱정 하셨데요.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고 저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려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3.3 민들레 홀씨 같은 삶

세 번째 주제는 <민들레 홀씨 같은 삶>으로 홀로 이국생활을 견디는 다문화여성들의 경험으로서, '홀로 떨어진 삶', '정체성을 잃은 삶'으로 묶여졌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지체계를 갑작스럽게 잃는 상실감을 얻으며[12], 홀로 이국생활을 견뎌야 하는 외로움으로 민들레 홀씨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과의 친밀감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 외로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친정을 그리워 하며 잠 못 이루며, 눈물로 지새우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결혼 후 곧바로 이어진 출산과 육아로 많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낮은 한국생활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외출도 거의 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시부모에게 일일이 지출을 이야기하고 타서 써야 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가족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주를 염려하며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경제권을 통제하여 다문화여성들은 집안에 갇힌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겪었다. 일본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던 한 조선족 연구대상자는 결혼 초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농촌생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힘들어 하였다.

처음에 그렇게 눈물 들었어요 베트남 엄마 친정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친정 얘기 하며는 엄마 아빠 걱정할 까봐 얘기도 못하고. 나도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살고, 엄마 옆에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외롭고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내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정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았었어요. 3년 동안. 진짜 막 하루 종일 있어도 출입문을 안 나갈 때도 있었어요.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추운지 더운지 모를 정도로 나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3.4 새로운 환경에 낮 설은 삶

네 번째 주제인 <새로운 환경에 낮 설은 삶>은 한국 가족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낮선 이방인의 삶', '고단한 농촌의 삶', '시부모와의 불편한 삶'으로 묶여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 한국문화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 낮선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기 어려웠으며, 가족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음식문화도 적응을 어렵게 하였다. 따뜻한 나라에서 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와 오침을 자지 않는 한국생활을 힘들어 하기도 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은 결혼 전 해보지 않았던 썰 틈 없이 고되고 힘든 밭 농사일에 지쳐있었다. 수확시기를 놓칠 수 없는 밭농사일로 만삭의 연구참여자가 수확을 거둬야 하고 낚시터와 민박집까

지 겸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가업과 가사를 책임져야 했다.

한편 시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의 고부갈등을 경험하였다. 임신한 연구참여자가 쉬는 것을 눈에 거슬려하여 낮잠을 자기도 어려웠고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해야하고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과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 일본 연구참여자는 일본의 시어머니와 달리 간섭이 심하고 직선적인 시부모의 잔소리나 지적 등이 통용되는 한국의 고부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본은 좀 조심스럽게 권하는 그런 스타일. 한국 시어머니는 사실 좀 간섭을 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차이인거 같아요. 한국은 너무 직접적이거든요. 일본은 한번 쿠션 넣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말 자체가 한국은 직접적인 표현이 많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고 약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화가 나고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할 말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3.5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가족

다섯 번째 주제인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가족>은 한국가족들의 지지 경험으로 '내편이 되어주는 가족', '안내자가 되어주는 가족', '십시일반 도움을 주는 가족'으로 묶여 졌다. 국제결혼을 통해 모국의 가족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을 안은 연구대상자들에게 남편을 비롯한 한국 가족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이해해 줄 때, 내편이 생긴 든든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결혼 초기 언어와 생경한 한국문화의 안내자로서 가족들의 도움에 고마워하였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자신의 한국어 습득의 기회나 한국 음식 조리법이나 살림살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언어발달이나 정서상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한국에서의 녹녹치 못한 삶에서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은 작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수발하는 조부모님이 용돈을 챙겨주거나 아이 간식 등을 챙겨주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황에서 학원비를 대주며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갖고 있었다.

네 어머님하고 싸우잖아요. 많이 미안해요 항상 제 편들어줘서. 당신 잘 못일 때도 어머님 편 안 들어주는 어머님 앞에서든 늘 제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당신 내편만 들어준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이 불편해 했나 봐요.

애기아빠는 내가 일할 스타일은 아니고 하니까 집에서 답답하고 하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시고. 그 상황에서 너 그럼 너네 나가서 살아라, 마련해 줄 형편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뭐라도 배워서 나가서 일할 생각 없냐고 그거야 나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뭘 배울데도 여기 학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렸더니 그러면 형님이 배우고 싶은 거 말씀해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학원비를 대주겠다는 거 예요.

3.6 가족으로 끌어안기

여섯 번째 주제인 <가족으로 끌어안기>는 다문화여성이 한국가족을 이해하고 보듬는 과정으로 '정이 드는 가족', '남편의 상처를 보듬음', '시부모님을 이해함', '서로 봐주며 살아가기'로 묶여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남편에게 애정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정이 들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면서 남편의 과거의 아픔을 전해 듣게 되고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도 자신의 치유자가 되어준 결혼이주여성 아내에게 의지하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남편을 이해하기도 하였으며, 초혼의 상처를 안고 있던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듬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고부관계에 있는 시어머니가 살아온 모질고 험난했던 삶을 이해하고 억척같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이해하며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많은 부분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봐 주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고부갈등으로 시댁 가까운 곳으로 분가하여 시부모의 식사나 살림을 챙기며 독립된 삶을 살며 고부간의 사이가 더욱 돈뚝해지기도 하였고 시부모님과 농사일과 소득분배로 갈등을 겪던 연구참여자도 남편과 자신이 독립적인 직업을 갖으면서 농사일로부터 해방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간섭받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였다.

본인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이 힘들고 외로운 걸 알아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는데요. 제가 본인 마음에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한데요. 자기 자신은 외로웠고 늘 나 홀로였는데요, 늘 그래왔고. 내가 어리고 젊어서를 떠나서 그렇다고.

4. 요약 및 논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문장들을 추출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형성과 주제 묶음을 통해 반복적 고찰을 한 결과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의 6가지 본질주제를 도출하였다. 6가지 본질적 주제는 <선택한 삶>,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절>, <민들레 홀씨 같은 삶>, <새로운 환경에 낮 설은 삶>,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가족>, <가족으로 끌어안기>로 나타났다.

다문화여성들은 결혼 초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제한적 사회관계로 인해 심리적 고립상

태에 처하기 쉽다[13]. 홍달아기 외(2012)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여성의 외롭고 힘든 삶을 “혼돈단계”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민들레 홀씨 같은 삶’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다문화여성들의 삶의 정체성 혼란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가족지지체계는 다문화여성들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서[3], 가족지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으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해 준다[13].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인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가족’은 가족의 지지경험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14]. 이러한 가족들의 지지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인이 가족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가족의 치유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가족들을 지지를 하는 ‘가족으로 끌어안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가족들의 지지가 다문화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13][14]는 결과들을 제시한데 반해,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문화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 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정서적지지 제공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게 하였다. 다문화여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 적령기를 놓친 배우자에게 한 여성의 남편이자 가장으로, 또한 아버지로서 지위를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고 초혼의 아픔이나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시부모에게는 노년의 고단한 삶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지지를 하고 있었다.

또한 첫 번째 주제 묶음 ‘선택한 삶’에서 보이 듯 다문화여성들의 가장 큰 결혼의 동기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친정을 돕기 위함 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제 묶음인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정’에서는 일반화 될 수는 없으나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대상자와 종교적 사명감으로 결혼한 일본인 대상자 중에 오히려 친정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는 물론 경제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자녀를 중국의 친정 부모님이 일정기간 양육해 주기도 하고, 시부모와 분가할 수 있도록 친정에서 임대료를 대준 사례도 있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맞고 있는 중국과 경제가 침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인 일본의 연구대상자들은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친정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최근 산후조리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하는 친정가족에 대해 1년간의 한국거주가 허용되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들이 한국 내에서 양육을 돕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을 살펴 볼 때 더 이상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초국가적 국제결혼의 논리로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여성의 친정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초기에 겪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며 한국가족들에게도 다문화여성의 상황과 문화적 차이 등을 초기에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가족지지가 다문화여성의 적응과 한국가족들의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부부중심, 고부중심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통해 다문화여성의 가족지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생활의 만족도 높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ttp://kosis.kr/2014_municipal_status_of_foreign_residents/, Augst 13 (2014).
- [2] Dal-Ah-Gi Hong, Ock-Hi Chea, Eun-Jin Han, Bok-Hee Song,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age and the Source of Support : With an Emphasis on Filipino Marriage Immigrants' Family Life Culture in Korea,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2), Vol. 16, No. 4, pp.1-22.
- [3] Hyun Suk Kim, A Study on the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0), Vol. 62, No. 2, pp.135-159.
- [4] Hyuong Sok Yoon, Minority in Korea, Hanul , Korea (2004), pp.321-349.
- [5] Yun-Jeong Kim, Comparision of experiences of parent-in-row in Korean families among daughters-in-law from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Vol. 12, No. 8, pp.501-513.
- [6] Han-Gon Kim, Factors Impacting on the Cross-Border Married Women's Life Adaptation in Rural Area, Gyungbook Province,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2009), Vol. 19, No. 1, pp.83-120.
- [7] Myong-Suk Yang, Hae-Sun Lee, Study on Family Resilience and Dyadic Adjustment of Married Coupl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Counseling (2011), Vol. 12, No. 2, pp.431-445.
- [8] Ji-Hyun Lee, Su-jin Jin, Hyeon-Jeong Ju, Yeon Sil, Cho,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3), Vol. 24, No. 1, pp.87-98.
- [9] Park Jin-Ok, The Factors Affecting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s and Daughter-in-laws in Multi-cultural Family,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2012), Vol. 52, No. -, pp.270-308.
- [10] Hong Dal-Ah-Gi, Lee Sun-Woo, Hwang Eun-Kyung, A Study of Immigrant Wives' Perceived Conflicts with their Mother-in-laws and Coping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4), Vol. 23, No. 5, pp.789-805.
- [11] http://kostat.go.kr/2013_marriage_divorce_statistics_Press/, April 22 (2014).
- [12] Cha Soon Koo,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07), No. 20, pp.319-359.
- [13] Chu Hyeon-hwa,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Adjustment for the Immigrant women's husband, Graduate School of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8).
- [14] Eunyoung Seong, Soontaeg Hwang, Chu Hyeon-hwa,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 18, No. 1, pp.243-256.